

## 〈論 文〉

## 고강도 알루미늄합금의 피로균열의 하한계 및 안정 전파거동

옹장우\* · 진근찬\*\* · 김종배\*\* · 김재훈\*\*\* · 하태수\*\*\*

(1987년 10월 19일 접수)

**A Study on Near Threshold and Stable Crack Growth Behaviors  
in High Strength Aluminum Alloys**

Jang Woo Ong, Keun Chan Jin, Jong Bae Kim,  
Jae Hoon Kim and Tai Soo Ha

**Key Words :** Threshold Fatigue Crack Growth(하한계 피로균열진전), High Strength Aluminum Alloy(고강도 알루미늄합금), Crack Closure(균열닫힘)

**Abstract**

The threshold fatigue crack growth and the stable crack propagation behaviors were studied in 7017 T 651, 7020 T 651 and 5083 H 115 aluminum alloys. The threshold ( $\Delta K_{th}$ ) fatigue crack growth can be expressed by the equation  $\Delta K_{th} = \Delta K_{th0}(1-R)^r$ , where  $R$  is stress ratio,  $\Delta K_{th0}$  is  $\Delta K_{th}$  at  $R=0$  and  $r$  is material constant. The stable crack growth rate against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 $\Delta K$  exhibits the trilinear form with two transitions and results of investigation on crack closure phenomena showed that the crack opening stress intensity factor  $K_{op}$  is approximately equal to  $R K_{max} + \Delta K_{th}$ .

**1. 서 론**

재료의 피로균열진전특성의 공학적 응용을 위해서는 안정균열 성장영역과 균열진전 하한계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균열진전 하한계값은 균열이 더 이상 진전하지 않거나 매우 작은 진전으로 성장하는 값으로서 응력비, 환경, 미시조직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<sup>(1~5)</sup>. 이는 어떤 균열검사방법으로든지 불가능한 최대균열 길이에서 구조물의 파손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이 된다. 또한 불규칙한 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손

상축적해석등을 위해서는 응력비의 영향을 포함하여 균열진전 속도식을 수식화 하는것이 요구된다.

본 연구에서는 항공기, 압력용기 및 지상운송차량 등에 고강도와 용접성이 요구되는 고강도 알루미늄합금 7017 T651, 7020 T651 및 5083 H 115에 대해 균열진전 하한계특성 및 안정 균열성장거동을 규명하고, 균열닫힘현상이 균열진전 하한계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.

**2. 실험 방법**

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알루미늄합금 7017 T 651, 7020 T 651 및 5083 H 115 판재로서 각각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Table 1, 2와 같다.

\*정회원,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공학과

\*\*대전기계창

\*\*\*충남대학교 대학원

Table 1 Chemical composition (wt, %)

Designation	Cu	Mg	Mn	Cr	Si	Fe	Ti	Zn	Zr	Ni
7017 T 651	0.20	2.00	0.05	0.35	0.35	0.45	0.15	4.00	0.10	0.10
7020 T 651	0.10	2.26	0.12	0.24	0.14	0.23	0.15	4.48	0.12	
5083 H 115	0.10	4.00	0.40	0.25	0.40	0.40	0.15	0.25		

Table 2 Mechanical properties

Designation	Yield strength $\sigma_y$ (kgf/mm <sup>2</sup> )	Tensile strength $\sigma_t$ (kgf/mm <sup>2</sup> )	Elongation $\epsilon$ (%)
7017 T 651	44.59	49.68	13.80
7020 T 651	34.93	39.44	15.48
5083 H 115	26.70	33.73	20.11

시험편은 CT시험편으로 ASTM E 647에 따라 설계하였으며 균열진전방향이 판재의 압연방향이 되는 L-T방향으로 하였다. 사용한 시험기는 Shimadzu 20톤용 유압 서어브식 피로시험기로 4톤을 최대 하중작용범위로 하고 하중반복속도를 12 Hz로 하여 하중감소방식으로 시험하였다. 균열길이는 디지털화된 100배의 이동식 현미경을 사용하여 표면과 이면 양쪽에서 1/1000mm까지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. 균열진전속도가  $5 \times 10^{-6}$  mm/cycle 이상인 구간에 대해서는 반복하중을 일정하게 하여 ASTM E 647을 확대 적용하였으며, 하한계 응력확대계수폭  $\Delta K_{th}$ 를 구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ASTM E 24, 04, 03에서 제안한<sup>(6)</sup> 시험법에 따라  $\Delta K$ 감소시험을 행하였다.  $\Delta K$ 감소시험은 하중감소에 따른 영향을 없애기 위하여, 응력비  $R$ 이 일정할 경우

$$C = \frac{1}{K} \frac{dK}{da} = \frac{1}{\Delta K} \frac{d\Delta K}{da} \geq -0.08 \text{ mm}^{-1} \quad (1)$$

이 되도록 하고, 하중감소후의 최대하중  $P_{max}$ 는 감소전  $P_{max}$ 의 90%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.

### 3. 실험결과 및 고찰

#### 3.1 균열진전 하한계특성

Fig. 1~3은 각각 7017 T 651, 7020 T 651 및 5083 H 115 알루미늄합금에 대한  $\Delta K$  감소시험에 의한 저  $\Delta K$ 영역의 균열진전속도를 보여준다. 7017 T 651은 균열진전에 대한 하한계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대신 7020 T 651 및 5083 H 115는  $\Delta K$ 가 더 감소되어도 낮은 속도의 균열진전이 계속됨을 알 수 있다. 본 연구에서는 균열진전속도가

$10^{-6}$  mm/cycle이하인 3점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 $\log(da/dN)$ 과  $\log(\Delta K)$ 의 함수를 선형회귀하여  $10^{-7}$  mm/cycle에 대응되는  $\Delta K$ 를 하한계 응력확대계수폭  $\Delta K_{th}$ 로 정하였다.

각 재료 및 응력비  $R$ 에 따른  $\Delta K_{th}$ 를 정리해 보면 Table 3과 같으며  $R$ 의 증가에 따라  $\Delta K_{th}$ 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.

Lukas와 Klesnil<sup>(7)</sup>, Asami<sup>(8)</sup>등은 응력비  $R$ 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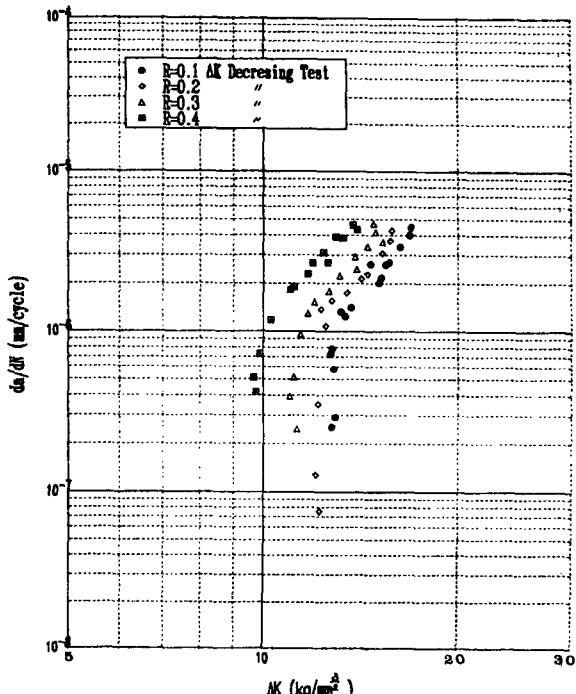


Fig. 1 Near-threshold fatigue crack growth rate vs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in 7017 T 651 aluminum allo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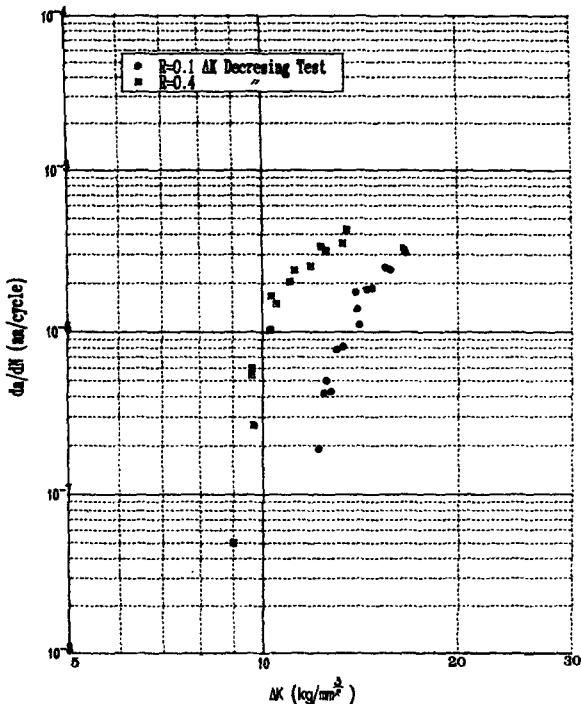


Fig. 2 Near-threshold fatigue crack growth rate vs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in 7020 T 651 aluminum allo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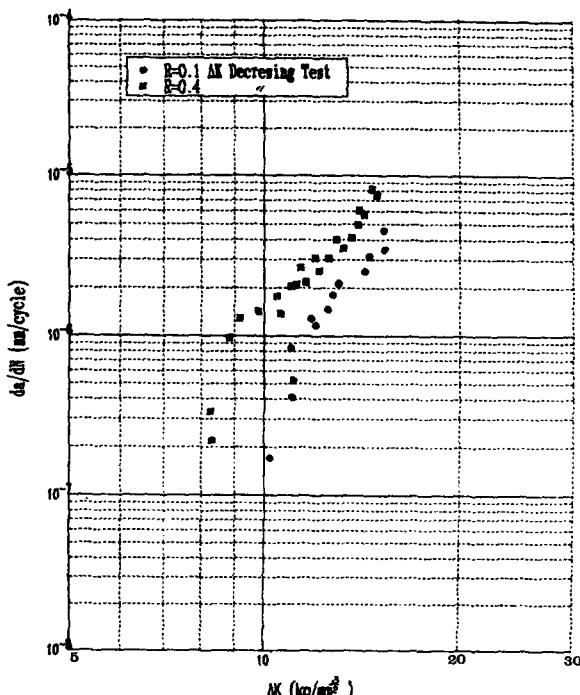


Fig. 3 Near-threshold fatigue crack growth rate vs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in 5083 H 115 aluminum alloy

Table 3 Threshold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 $\Delta K_{th}$

Designation	Stress ratio, R	$\Delta K_{th}$ (kg/mm <sup>3/2</sup> )
7017 T 651	0.1	12.78
	0.2	12.13
	0.3	11.10
	0.4	9.75
7020 T 651	0.1	12.16
	0.4	9.21
5083 H 115	0.1	10.33
	0.4	8.24

Table 4  $\Delta K_{th} = \Delta K_{th0}(1-R)^r$

Designation	$K_{th0}$ (kg/mm <sup>3/2</sup> )	r
7017 T 651	14.06	0.706
7020 T 651	13.07	0.685
5083 H 115	10.96	0.558

$\Delta K_{th}$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 $\Delta K_{th}$ 와 R의 관계를  

$$\Delta K_{th} = \Delta K_{th0}(1-R)^r \quad (2)$$
  
여기서  $\Delta K_{th0} = \Delta K_{th}$  at  $R=0$   
= material constant.

으로 제안하였다<sup>(7)</sup>.

Fig. 4는 1-R과  $\Delta K_{th}$ 와의 관계를 양대수 좌표로 나타낸 것으로 식(2)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 각 재료에 대해 R과  $\Delta K_{th}$ 와의 관계를 식(2)로부터 구해 보면 Table 4와 같다. Table 4는 7017 및 7020 알루미늄 합금이 5083 알루미늄 합금보다 균열진전하한계값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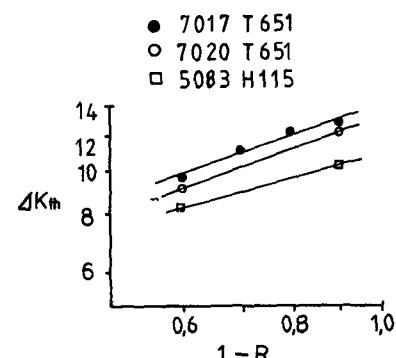


Fig. 4 Relationship between  $\Delta K_{th}$  and R

### 3.2 안정균열 성장거동

Fig. 5~7은 각 재료의 2단계 피로균열 진전속도를 구한 실험결과와 낮은  $\Delta K$ 영역의 하중감소시험에 의한 균열진전하한계 실험결과를 합하여 나타낸 것이다. Fig. 5는 응역비  $R$ 을 0.1, 0.2, 0.3, 0.4로 변화시키면서 시험한 7017 T 651 알루미늄합금의 제1, 2단계 피로균열진전속도를 보여주고, Fig. 6, 7은 7020 T 651 및 5083 H 115 알루미늄합금에 대한  $R=0.1, 0.4$ 인 경우의 실험결과를 나타내고 있다.

그림에서  $\Delta K$ 가 큰 영역에서는 응역비의 영향이 작고  $\Delta K$ 가 낮은 영역일수록 응력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. 또 제2단계의 안정균열 성장영역에서는 Paris의 균열진전법칙  $da/dN = C(\Delta K)^m$ 을 달리 적용시켜야 할 3개의 구간으로 구분될 수 있다. 즉 Fig. 5~7 및 Table 5에서 균열진전속도가  $10^{-6} \sim 10^{-5}$  mm/cycle 부근은 비교적 완만한  $m=3 \sim 5$ 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(Table 5의 Ⅱ<sub>a</sub> 영역),  $10^{-5} \sim 10^{-4}$  mm/cycle부근에서는  $m$ 값이 7이 상되는 급격한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 (Ⅱ<sub>b</sub>영역). 이러한 현상은 5083-0 알루미늄합금에 대한 실험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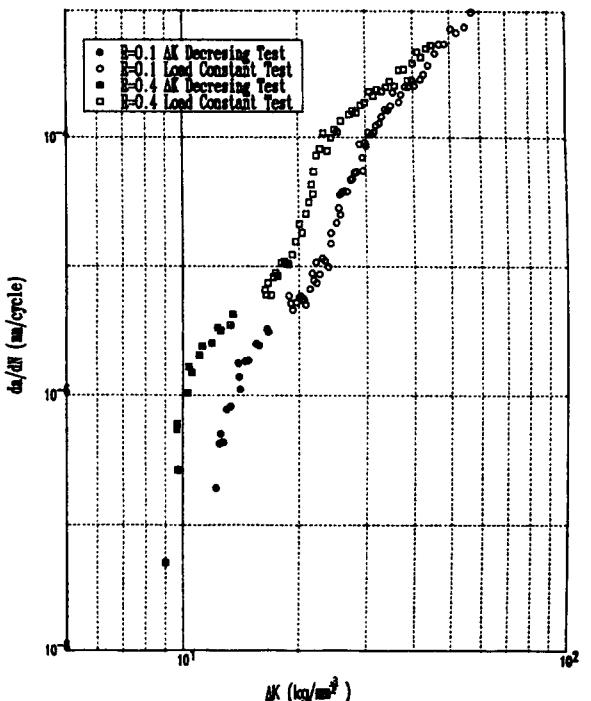


Fig. 6 Fatigue crack growth rate vs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in 7020 H 651 aluminum allo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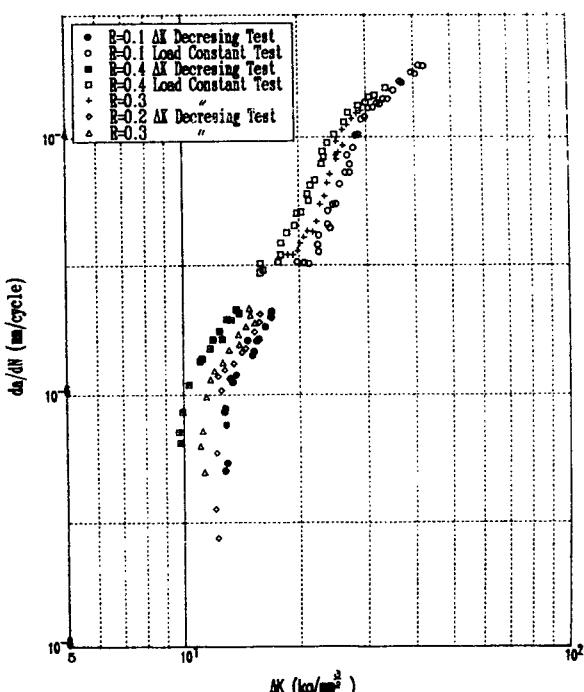


Fig. 5 Fatigue crack growth rate vs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in 7017 T 651 aluminum allo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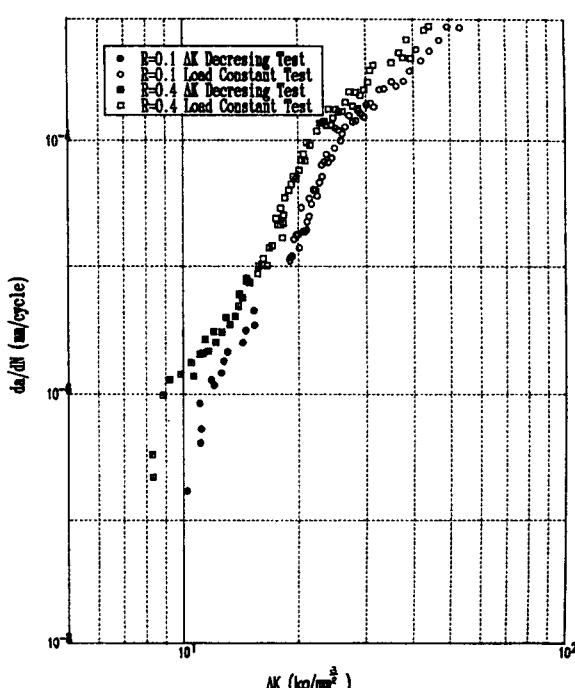


Fig. 7 Fatigue crack growth rate vs stress intensity factor range in 5083 H 115 aluminum alloy

Table 5  $da/dN = C(\Delta K)^m$ 

Designation	Region	Stress ratio $R$	$\Delta K$ range (kg/mm <sup>3/2</sup> )	$da/dN$ range (mm/cycle)	C	m
7017 T 651	II a	0.1	14.12 ≤ $\Delta K$ ≤ 23.04	$1.75 \times 10^{-6} \leq da/dN \leq 1.74 \times 10^{-5}$	$5.53 \times 10^{-12}$	4.77
		0.3	12.37 ≤ $\Delta K$ ≤ 22.69	$1.64 \times 10^{-6} \leq da/dN \leq 2.71 \times 10^{-5}$	$1.62 \times 10^{-11}$	4.59
		0.4	10.69 ≤ $\Delta K$ ≤ 20.05	$1.64 \times 10^{-6} \leq da/dN \leq 2.56 \times 10^{-5}$	$4.77 \times 10^{-11}$	4.40
	II ab	0.1	23.04 ≤ $\Delta K$ ≤ 29.65	$1.74 \times 10^{-5} \leq da/dN \leq 1.54 \times 10^{-4}$	$2.86 \times 10^{-17}$	8.65
		0.3	22.69 ≤ $\Delta K$ ≤ 27.59	$2.71 \times 10^{-5} \leq da/dN \leq 1.50 \times 10^{-4}$	$3.71 \times 10^{-17}$	8.75
		0.4	20.05 ≤ $\Delta K$ ≤ 25.39	$2.56 \times 10^{-5} \leq da/dN \leq 1.54 \times 10^{-4}$	$2.97 \times 10^{-15}$	7.63
	II b	0.1	29.65 ≤ $\Delta K$	$1.54 \times 10^{-4} \leq da/dN$	$1.88 \times 10^{-8}$	2.66
		0.3	27.59 ≤ $\Delta K$	$1.50 \times 10^{-4} \leq da/dN$	$5.77 \times 10^{-8}$	2.37
		0.4	25.39 ≤ $\Delta K$	$1.54 \times 10^{-4} \leq da/dN$	$3.32 \times 10^{-7}$	1.90
7020 T 651	II a	0.1	14.95 ≤ $\Delta K$ ≤ 24.59	$2.16 \times 10^{-6} \leq da/dN \leq 1.46 \times 10^{-5}$	$9.48 \times 10^{-11}$	3.73
		0.4	10.63 ≤ $\Delta K$ ≤ 19.56	$1.92 \times 10^{-6} \leq da/dN \leq 1.27 \times 10^{-5}$	$1.30 \times 10^{-9}$	3.09
	II ab	0.1	24.59 ≤ $\Delta K$ ≤ 31.37	$1.46 \times 10^{-5} \leq da/dN \leq 1.20 \times 10^{-4}$	$1.32 \times 10^{-17}$	8.66
		0.4	19.56 ≤ $\Delta K$ ≤ 23.10	$1.27 \times 10^{-5} \leq da/dN \leq 1.60 \times 10^{-4}$	$1.20 \times 10^{-21}$	12.41
	II b	0.1	31.37 ≤ $\Delta K$	$1.20 \times 10^{-4} \leq da/dN$	$6.50 \times 10^{-10}$	3.52
		0.4	23.10 ≤ $\Delta K$	$1.60 \times 10^{-4} \leq da/dN$	$3.79 \times 10^{-8}$	2.51
5083 H 115	II a	0.1	12.27 ≤ $\Delta K$ ≤ 22.59	$1.38 \times 10^{-6} \leq da/dN \leq 4.68 \times 10^{-5}$	$4.15 \times 10^{-11}$	4.47
		0.4	11.31 ≤ $\Delta K$ ≤ 13.36	$2.12 \times 10^{-6} \leq da/dN \leq 2.08 \times 10^{-5}$	$9.35 \times 10^{-12}$	4.75
	II ab	0.1	22.59 ≤ $\Delta K$ ≤ 25.26	$4.68 \times 10^{-5} \leq da/dN \leq 1.13 \times 10^{-4}$	$8.06 \times 10^{-16}$	7.95
		0.4	13.36 ≤ $\Delta K$ ≤ 22.11	$2.08 \times 10^{-5} \leq da/dN \leq 1.29 \times 10^{-4}$	$1.22 \times 10^{-15}$	8.20
	II b	0.1	25.26 ≤ $\Delta K$	$1.13 \times 10^{-4} \leq da/dN$	$1.04 \times 10^{-8}$	2.88
		0.4	22.11 ≤ $\Delta K$	$1.29 \times 10^{-4} \leq da/dN$	$3.88 \times 10^{-8}$	2.62

Table 6  $da/dN = C' (\Delta K - \Delta K_{th})^m'$ 

Designation	Region	$(\Delta K - \Delta K_{th})$ range (kg/mm <sup>3/2</sup> )	$da/dN$ range (mm/cycle)	C'	m'	$\Delta K_{th}$
7017 T 651	II a	2.37 ≤ $\Delta K - \Delta K_{th}$ ≤ 8.67	$2.40 \times 10^{-6} \leq da/dN \leq 1.21 \times 10^{-5}$	$7.99 \times 10^{-7}$	1.26	$\Delta K_{th} = 14.06(1-R)^{0.706}$
	II ab	8.67 ≤ $\Delta K - \Delta K_{th}$ ≤ 19.10	$1.21 \times 10^{-5} \leq da/dN \leq 2.56 \times 10^{-4}$	$2.91 \times 10^{-9}$	3.86	
	II b	19.10 ≤ $\Delta K - \Delta K_{th}$	$2.56 \times 10^{-4} \leq da/dN$	$1.16 \times 10^{-6}$	1.83	
7020 T 651	II a	1.02 ≤ $\Delta K - \Delta K_{th}$ ≤ 11.91	$9.34 \times 10^{-7} \leq da/dN \leq 8.98 \times 10^{-6}$	$9.19 \times 10^{-7}$	0.92	$\Delta K_{th} = 13.07(1-R)^{0.685}$
	II ab	11.91 ≤ $\Delta K - \Delta K_{th}$ ≤ 22.80	$8.98 \times 10^{-6} \leq da/dN \leq 2.05 \times 10^{-4}$	$5.85 \times 10^{-11}$	4.82	
	II b	22.80 ≤ $\Delta K - \Delta K_{th}$	$2.05 \times 10^{-4} \leq da/dN$	$2.18 \times 10^{-7}$	2.19	
5083 H 115	II a	4.10 ≤ $\Delta K - \Delta K_{th}$ ≤ 9.22	$2.86 \times 10^{-6} \leq da/dN \leq 1.50 \times 10^{-5}$	$1.54 \times 10^{-7}$	2.06	$\Delta K_{th} = 10.95(1-R)^{0.588}$
	II ab	9.22 ≤ $\Delta K - \Delta K_{th}$ ≤ 14.58	$1.50 \times 10^{-5} \leq da/dN \leq 1.23 \times 10^{-4}$	$5.46 \times 10^{-10}$	4.60	
	II b	14.58 ≤ $\Delta K - \Delta K_{th}$	$1.23 \times 10^{-4} \leq da/dN$	$5.49 \times 10^{-7}$	2.02	

과에서도 보고되고 있다<sup>(9)</sup>.

이 원인으로는 미시조직상의 계재물의 영향<sup>(10)</sup>, 소성역크기와 결정입경과의 관계<sup>(9,11)</sup>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.

Hartman과 Schijve는  $\Delta K_{th}$ 를 포함한 아래식

(3)의 균열진전속도식을 제안하였다<sup>(12)</sup>.

$$da/dN = C' (\Delta K - \Delta K_{th})^{m'}$$

Fig. 8~10은 Fig. 5~7의  $da/dN$ 을  $\Delta K - \Delta K_{th}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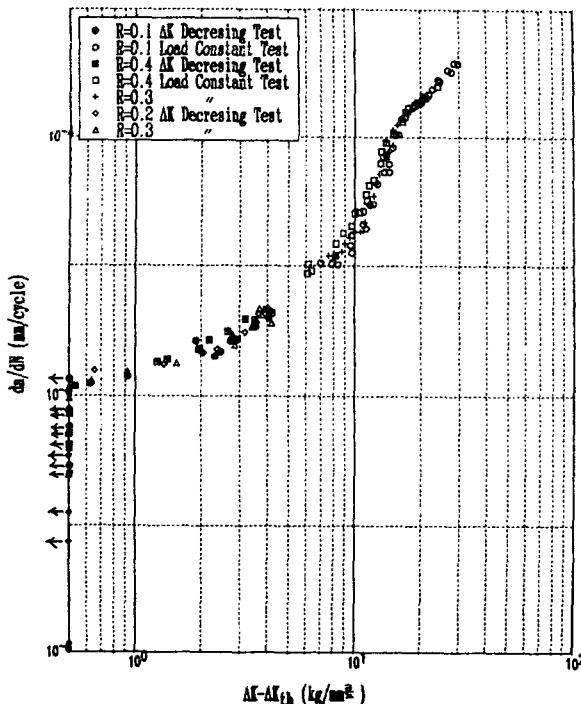


Fig. 8 Fatigue crack growth rate vs  $\Delta K - \Delta K_{th}$   
7017 T 651 aluminum allo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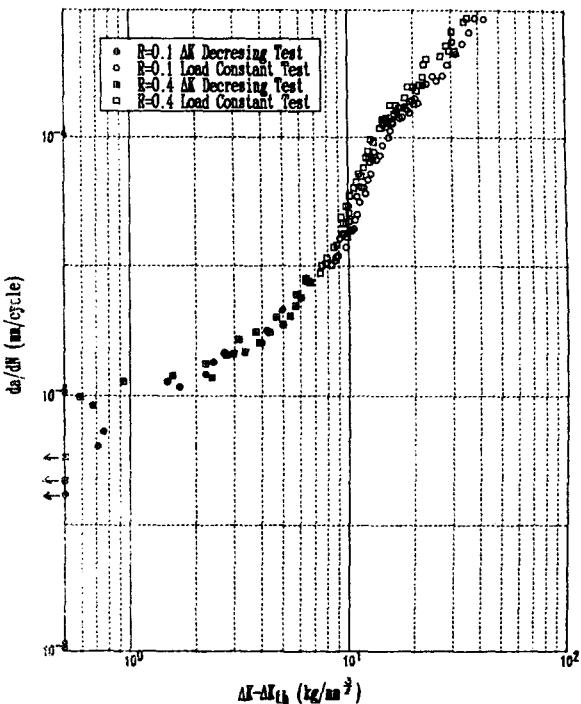


Fig. 10 Fatigue crack growth rate vs  $\Delta K - \Delta K_{th}$  in  
5083 H 115 aluminum allo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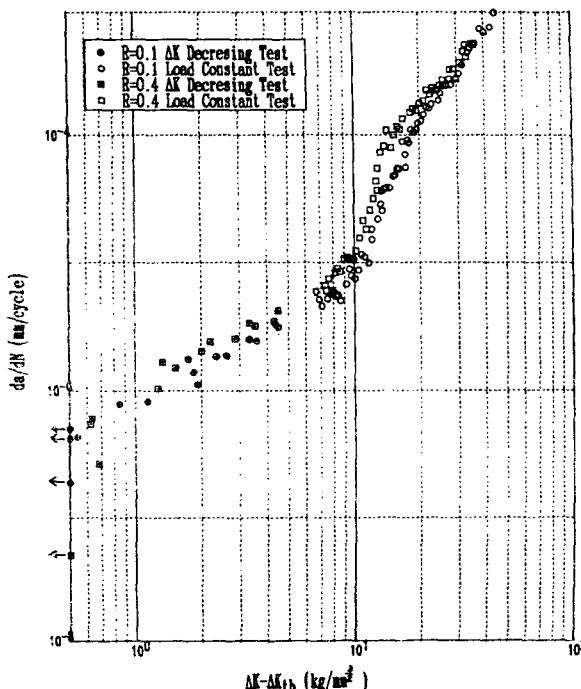


Fig. 9 Fatigue crack growth rate vs  $\Delta K - \Delta K_{th}$  in  
7020 T 651 aluminum alloy

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, 약간의 흔어짐은 있으나  $R$ 값에 관계없이 잘 정리되고 있다. 또 제2단계 균열진전영역은 Fig. 5~7에서와 마찬가지로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, 각 재료에 대하여 구간별로 식(3)의  $C'$ 와  $m'$ 를 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.

균열단힘현상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는 유효응력 확대계수폭  $\Delta K_{eff}$ 를 사용하면 응력비에 관계없이 균열진전속도가 아래식(4)로 잘 정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<sup>(9,13)</sup>.

$$da/dN = C' (\Delta K_{eff})^{m'} \quad (4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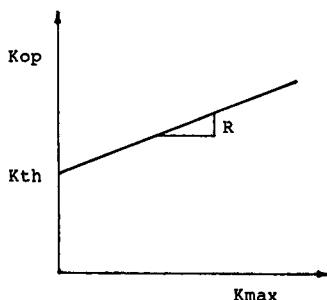
식(3)과 (4)는 응력비에 관계없이 균열진전 속도가 잘 정리되고, 또한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균열열림점의 응력확대 계수  $K_{op}$ 의 영향을 고찰해 보기위해

$$\Delta K_{eff} = K_{max} - K_{op} = \Delta K - \Delta K_{th} \quad (5)$$

라고 가정하면

$$\begin{aligned} K_{op} &= K_{max} - \Delta K + \Delta K_{th} \\ &= R K_{max} + \Delta K_{th} \end{aligned} \quad (6)$$

가 된다. 식(6)에서  $K_{op}$ 는  $K_{max}$ 가 증가함에 따라  $R$ 의 기울기를 따라 증가한다. 이를 도식적으로 표시하면 Fig. 11과 같다. 이러한 특성은 5083-0 알

Fig. 11 Dependence of  $K_{op}$  on  $K_{max}$ 

루미늄합금에 대한  $K_{op}$ 와  $K_{max}$  관계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<sup>(9)</sup>.

따라서 식(5), (6)을 사용하면 약간의 흘어짐은 있으나 균열단힘현상에 대한 측정없이  $\Delta K_{th}$ 를 이용하여 균열진전속도식을 잘 정리할 수 있다.

#### 4. 결 론

고강도 알루미늄합금인 7017 T 651, 7020 T 651 및 5083 H 115에 대해  $\Delta K$  감소시험에 의한 균열진전 하한계특성과 제2단계 균열진전특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(1) 7017 T 651, 및 7020 T 651 알루미늄합금이 5083 H 115 알루미늄합금보다 응력비  $R$ 의 영향을 받고 균열진전 하한계값이 크다.

(2) 제2단계 균열진전특성은 대략  $10^{-6} \sim 10^{-5}$  mm/cycle,  $10^{-5} \sim 10^{-4}$  mm/cycle,  $10^{-4}$  mm/cycle 이상의 3영역으로 구분되고, 특히  $10^{-5} \sim 10^{-4}$  mm/cycle 영역에서는 Paris의 균열진전속도식의  $m$ 값이 7이상이 되는 급격한 기울기를 가진다.

(3)  $K_{op} \cong RK_{max} + \Delta K_{th}$ 의 관계를 사용하여  $\Delta K_{eff} = \Delta K_{max} - K_{op}$ 로  $da/dN$ 을 정리하면 약간의 흘어짐은 있으나 응력비  $R$ 에 관계없이 균열진전속도를 잘 정리할 수 있었다.

#### 참 고 문 헌

- (1) P.C. Paris, R.J. Bucci, E.T. Wessel, W.G. Clark, Jr., and T.R. Mager, 1972, "EX Tensive Study of Low Fatigue Crack Growth Rates in A533 and A508

- Steels, ASTM STP 513, pp.141~176.
- (2) R.J. Bucci, W.G. Clark, Jr. and P.C. Paris, 1972, "Fatigue Crack Propagation Growth Rates under a wide Variation of  $\Delta K$  for an ASTM A517 Grade F Steel, ASTM STP 513, pp.177~195.
- (3) R.O. Ritchie, 1979, "Near-Threshold Fatigue -Crack Propagation in Steels, Int. Metals Reviews, Nos. 5 and 6, pp.205~230.
- (4) R.L. Tobler and Y.W. Cheng, 1985, "Automatic Near-Threshold Fatigue Crack Growth Rate Measurements at Liquid Helium Temperature", Int. J. Fatigue 7, No. 4, pp. 191~197.
- (5) W.V. Vaidya, 1986, "Near Threshold Fatigue Crack Propagation Behaviour of a Heterogeneous Microstructure, Fatigue Fract, Engng, Mater. Struct., Vol. 9, No. 4, pp.305~317.
- (6) ASTM Committe E-24, 1981, "Proposed ASTM Test Method for Measurement of Fatigue Crack Growth Rates", Appendix II, ASTM STP 738, pp. 340~356.
- (7) P. Lukas and M. klesnil, 1972, "Effect of Stress Cycle Asymmetry of Fatigue Crack Growth", Mater, Sci. Eng., Vol. 9, pp.231~240.
- (8) K. Asami, 1985, "Current Research on Fatigue Cracks", The Japan Society of Material Science, pp. 175~199.
- (9) 박영조, 김정규, 김일현, 1986, "5083-0 알루미늄 합금의 피로균열진전거동과 균열단힘에 관한 연구, 대한기계학회논문집, 제10권 제2호, pp.208~214.
- (10) S.M. El-Soudani and Pelloux, 1973, "Influence of Inclusion Content on Fatigue Crack Propagation in Aluminum Alloys, Metallurgical Trans., Vol. 4, pp.519~531.
- (11) G.R. Yoder, L.A. Cooly and T.W. Crooker, 1978, "Fatigue Crack Propagation Resistance of Beta-annealed Ti-6Al-4V Alloys of Differing interstitial Oxygen Contents", Metallurgical Trans., Vol. 9A, pp.1413~1420.
- (12) A. Hartman and J.Schijve, 1970, "The Effects of Environment and Load Frequency on the Crack Propagation Law for Macro Fatigue Crack Growth in Aluminum Alloys", Engng, Frac, Mech., Vol.1, pp.615~631.
- (13) W. Elber, 1971, "The Significance of Fatigue Crack Closure", ASTM STP 486, pp.230~242.